

아흔 번째 소식

2024.6.29

성령 강림 주일에 로마서 8장 22-27절을 설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에 마음으로 아파하며 깊은 탄식을 흘리듯, 성령님의 탄식에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신자의 신음에 대한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의 영광스러운 말씀(37-38절)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확신하며 주님의 대위임 명령에 힘껏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이전 글에서 오프라인으로 한국어 교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4월부터 인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왔고, 오전반은 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에 교환 교수로 온 이들이나 연구소 연구원 혹은 한국 회사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온 이들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입니다.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해력이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뜨겁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네 번 모이는데, 동향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한국에서 모국어가 통하는 이들을 만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기에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간

오전에 인도인 4명이 한국어를 공부한 지 세 달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은 인도 음식을 맛보여 주겠다고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다른 날은 생일이라고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길거리에 서서

30-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들과 만나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언제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있다면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선교단체의 채플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동참

한 교회의 두 여집사님이 월요일에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여 인도인들과 대화하며 이들의 회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방문한 교회에서 인도인들이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 와서 도와 주길 요청했는데 두 분이 바로 다음 날부터 참여하여 회화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업 전에 기타를 치며 "내 영혼에 그윽히"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두 인도인이 녹음된 찬양을 들려주며 크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함께 웃은 후, 그들은 이 곡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마치자 자기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기타를 가르칠 실력이 안돼서 어렵다고 사양했으나 간곡히 부탁해서 기타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여성분 중에서 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며 자연스럽게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어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들에게 한국어 대화나 한국 문화(한국 요리, 한국 명소 나들이)나 한국어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분은 저에게 연락(010-2675-1584) 주십시오. 저녁에는 2개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일요일에는 기니인과 계속하여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34절이었습니다. 초창기 신자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견디도록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서 성장한다. 마치 비가 내려 농작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해 보여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말씀은 역동적으로 일한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안전함을 확신하며, 주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 행하실 복된 말씀을 증언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임 영훈 드림.